

장애물 헐기 Breaking Barriers

모든 사람들은 속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봉사합니다. Everyone belongs. Everyone serves..

2011년 봄, 89호 북미주 개혁교회와 미국 개혁교회 사역 / 장애우를 위한 업무처

주제: 간단한 통로들로부터 앞서간 기계 장치들까지, 기술은 장애물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훨씬 쉬운 교회생활과 예배를 만들어 줍니다. 이번 '장애물 헐기' 호에는 기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가 쉬쉬는 모든곳에 하나님의 계획

조엘 벤델 몰렌, 제2의 개혁교회 성도, 펠라, 아이오와주

예레미야 29 장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삶을 돌아볼때도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살 때인 1985년 까지는 미래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차사고 이후 나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고로 나는 사지 마비가 되었고 숨을 쉬기위해 통풍관이 필요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벌써 나 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인간의 정교한 은사들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학교 갈 즈음에는 기술은 여러 컴퓨터 형식과 매개체로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엔 우리 교회의 (아이오아주 펠라, 제2의 교회) 내 친구 목사님 아들이 개발한 적은 기본적 웹을 지원하는 필요가 생겼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내가 기술에 관심갖고 새로운 것들을 빨리 적응하도록 인도하였고 나는 그 일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동안 나는 여러 웹사이트서 일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고 그후 기술정보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직업을 찾는동안 나는 계속 웹에서 일했습니다. 밖에서 할 수 있는 여러달을 찾았지만 얻지 못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한 고객이 다른 회사의 디자인 기술을 필요하는 다른 웹을 요구했습니다. 집으로 온 몇달 지난후 그 회사와 새로 창업한 나의 회사-VMT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주의 기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곳들은 회사들이고 또 다른곳들은 교회들의 기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스피커 장비와 청각 도움과 비데오 등으로 예배를 돕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일을 하고 통신과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은 내가 처음 다쳤을 때보다 더 많은 자연스런 설 곳을 만들어 냅니다.

나는 내 삶에서 의미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음의 가능성, 교회들의 움직임

데이빗 G. 메이어스, 소망교회의 성도(미국개혁교회), 홀랜드, 미시간주; ‘한 조용한 세상: 청각 장애의 삶’의 저자; 미국 청각 협회로부터 2011 대통령 상을 받음

당신이 심하게 청각을 잃은 자라고 상상 해보세요. 예배 때나 혹 극장에서든 당신은 들리는 말들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쓸것입니다. 듣는데 도움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첫째는, 잘듣기 위해서 할일은 특별한 헤드폰 찾아 쓰고 모순되는 청각 도움 기구나 달팽이관 이식 같은 모든 것들로 소리를 들을 것인가요?

아니면, 눈에 띄지 않게 단추를 눌러서 무선의 스피커로 맞춤형 청각 도움이 되는 소리의 제공하기 인가요?

첫번 것은 미국의 널리 퍼진 듣기 도움 기술이고, 두번째 것은 듣기 도움에 적합한 것으로 영국, 스켈드나비아나... 미시간 서부인 홀랜드/질랜드나 그랜드 래프츠의 많은 교회들의 예배실서 가장 편하게 쓰는 ‘듣기 고리’ 의 흔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많은 미시간 학교 강단의 출구들이나 그랜드 래프츠 공항이나 심지어는 미시간 주립대학의 농구장에 만이천 이백개의 좌석에 부착되듯이 번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것들이 계속 번진다는 것입니다. 위스컨신 주에 약 60 여군데에 청각학자가 캠페인(www.loopwisconsin.com)을 확실하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교회들이 이런 움직임의 문화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 위스컨신 교회선 “ 첫 주일에 고리 기구를 사용했을 때 나의 생애 잊지못할 가장 추억의 한 날이었다. 처음으로 모든 말들을 알아들었을 때는 목사님이 직접 내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주위를 돌아봤을 때 듣는 도움을 한 다른 사람들도 다

놀라는 얼굴들로 모두 같은 경험을하고 있음을 나는 알았다. 어떤 분들은 턱에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상기합니다

비슷하게도 애리조나, 뉴 멕시코, 가주의 실리콘 밸리, 뉴욕의 로체스터, 시카고, 그리고 뉴욕 시에도 저변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의 새로운 정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미청각 장애협회와 미국 청각학회가 함께 전국적인 “듣기 고리 갖기’ 캠페인을 워싱턴 D.C.에서 전국적인 컨퍼런스로 6 월 16-20 일까지 한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종 교회는 문화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청각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교회가 문화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소리 소개들, 고리 종류들, 판매처들 등-은 www.hearingloop.org 보세요.)

결정에 기술 사용자들을 포함시키기

마크 스트븐슨, 북미 개혁교단의 장애우 업무처 디렉터

여러해 전에 나는 교회 건물의 출구를 계획하는 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엘리베이터를 어디에 만들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전 앞을 지나서 건물뒤로 들어가는 곳이나, 혹 부착하는게 많은 비용이 드는 건물 앞에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 메일의 주인공은 모든 사람들이 뒤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성전의 앞을 통해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주장하는 의견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적은 비용을 들어서 만드는 출구가 좋아보이지만, 그러나 그 좋아보이는 것이 더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출구의 문제들을 적은 비용의 바꾸는 쉬운방법으로 해결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어떤것은 돈이 들고 어떤 때는 많은 돈이 듭니다. 교회가 어떤 출구를 개선하며 비용들어 만들기 전에 장애우들과 상의함이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나 강대상 잘라내는 곳, 듣기 고리의 설치, 청각 도움 기구들이나 시각 장식, 예배의 표제, 화장실의 구조, 복도나 옷장의 디자인등들은 보통 장애우들의 관점들이 가장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 교회의 리더쉽과 사역에 동참하는 장애우들은 교회와 주의 나라를 가장 잘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 적응 범위-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

마크 스트븐슨, 북미 개혁교단의 장애우 업무처 디렉터

북미의 약 100 명의 8 명 정도는 눈 못보는 자이거나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안경이나 콘택트 렌스를 사용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기술을 사용하여 시각의 장애우의 삶과 사역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단가의 적용들은 이렇습니다:

- 큰 인쇄주보, 노래 책이나 성경책을 준비하기
- 읽기 쉬움에 최적화의 계획 본문 (더 자세히 보기 www.crcna.org/disability)
- 책자나 교회 다른 소식들을 온라인이나 이메일 텍스트로 보내 스크린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이런 조정들은 많은 시각 장애가진 사람들에게 충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올랜드 팍 교회는 여러해 전에 한 시각 장식을 구입해 지금 매주 필요한 몇 성도들에게 주보, 노래 가사들이나 설교 요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약 삼천 오백불의 장식 기구 비용을 들었지만 그중 받은 조니와 친구들의 후원인 장애우 위한 기독기금을 받아 지출했습니다 (www.jonindfriends.org).

매주 그 기구를 사용하는 케디 헨네시씨는 말하기를 이런 시각 통역 기구는 “배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나는 장식이 필요한 워드문자를 열면 그 기구가 통역을 하고 그후 나는 그것을 장식구에 보냅니다.”

시각문자를 사용하는 조 쿠스터씨는 이런 조절을 감사하면서 “이 장식 기구가 있기 전에는 나는 함께 노래들을 부르거나 주보를 읽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는 예배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인도자들도 이렇게 다른 식으로도 인도함이 필요함을 봅니다.

아이오아주의 웰스버그 교회 톰 보스목사님은 점진적인 시각 잃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각이 큰 글자도 읽지못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시각 노트 테이커라 불리는 특별한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금속 골자를 사용해 한

번에 한 시각의 라인을 읽어 그리고 컴퓨터에 입력된 소리로 그 문자를 사용자에게 듣게해주는 것입니다.

보스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그는 그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후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그는 설교도 준비된 설교문을 듣는 같은 방식으로 전합니다.

성경공부와 설교준비는 아직도 보스목사에게는 숙제인데 왜냐면 그는 주석이나 다른 참고자료들을 읽지못하기에-그와 그의 아들이 오프타시아 사역을 발견하기 전까지(www.optasiaministry.org). 디지털 방식의 스크린 읽기 컴퓨터 기기는 공짜 성경공부 기구들과 다른 기독교 사역 자료들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저런 방식들로 기술은 교회생활에 시각 장애우들에게 지도자의 일들을 할 수있게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교실서 사용하는 휴대용 기구들

테리 디 영, 미국 개혁 교회의 장애우 업무처 디렉터

교회 당회는 청각 장애가 있는 한 젊은이의 신앙고백을 잘 할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중요한 책임의 일들이 근심되는 일이 되기에 아마 어떤 성급한 장로는 교회가 섬길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감사하게도 로즈우드 개혁교회의 교육실에는 여러 청각 휴대용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기에 클라이어 보스의 청각 잃음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크게 얘기하지 못하고 또 어떤이는 얘기할 때 머리를 돌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난 들을 수가 있어요.” 보스는 교회 모임이나 성경공부 때의 경험을 말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탁자에 손톱을 긁는소리까지도 들을수 있다.”

미시간 주의 제니슨 교회가 2003 년 교회당에 유도기구 시스템을 설치한 후 그것이 여러 청각 도움받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로즈우드의 장애 사역자인 이반 윌리웬즈는 “우리는 이 기구 시스템으로 인해 몇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였다” 시간이 지나 면서 우리는 더 많은 기구들이 성경공부실이나, 회의실이나 어린이 주일학교실에도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여러 시행착오 후, 로즈우드 교회는 여러 방 천장에 매다는 적은비용의 기구들인 2 개의 증폭기와 마이크로 폰이 필요함을 알게되었다. 한 교실에 약 200-300 불의 증폭기와 180 불의 다목적 마이크로 폰으로 장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교육센터에 휴대용 기구들의 설치하는 청각도움 받는 자들이나 달팽이관 이식하는 자들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라고 윌리엄스는 말하면서 “우리는 청각 장애우들이 더 많이 여러 활동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되었다.”

가장 훌륭한 기구-새 아이폰

루이스 슈메이커, 갈보리 개혁교회 성도이며 호프 대학의 장애우 사역의 디렉터, 홀란드, 미시간

1980년대 장님 대학생으로 있을 때 교실서 테잎 레코드를 사용하며 나를 돕는 다른 기술로 테이프 책을 들곤 하였다. 식사과정을 시작하는 1988년에 나는 첫 컴퓨터를 샀는데 그것은 오직 스크린 읽기에만 주는 혜택이 있었다. 컴퓨터 읽기 글기와 함께 글자 치기, 쓰는 종이들과 시험 보기등은 한층 내게 쉽게 또 다룰 수 있게 하였다.

1990년대의 인터넷 과 스크린 읽기 기술 발전은 일을 문서로 만들고 이멜로 연락하는 내게 완전한 새 세상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발전과 시각문자 알기의 기술의 발전은 틈을 지키지 못했고, 장애우들이 살 수있는 능력이나 추구의 부족을 줄이지 못했다. (예를 들어, 미국경우 45%의 장애우들은 일이 없고 -장님인 여자들은 85%가 됨-그리고 일을 하는 다수도 자영업임).

어쩌면 변화는 오고있다. 최근 저는 아이폰 4을 샀는데, 이것은 내가 33년간 장님으로 지내는 동안에 가장 훌륭한 기구임을 알았다. 난생 처음으로 내게 도움주는 많은것들을 돈주고 사지 않았다. (스마트 폰 그것은 나의 새 전화처럼 작동되지 않았다) 소리를 넘는 기술인 내 아이폰은 내 사무실의 컴퓨터나 랩탑보다도 더 잘 되고 있다. 이 스크린 읽기는 전화의 다른 부분으로 움직이기 위해 키를 한번 치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수 많은 종류의 전화에 제한되지 않고 또 이것은 전화를 걸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아이폰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를 돕는 새 작동들을 발견하였다, 만일 내가 다른 것을 찾을 때 전기 책자는 쉽게 찾게한다. 또한 나는 아이폰 적용들이 다른 기동성 장애들에게나 귀머거리이기에 수화를 사용하는 장애우들에게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이 아이폰을 팔려고 하지 않아도 사실은 내가 이 새 경험으로 매순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다.